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의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시편 18:1)

총 헌

725 6222929502 79255

197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동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 헌 교 회

(27) 9937 • 9738

□ 성탄 메시지 □



망위의 가장 큰 명절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신 구주 성탄절입니다. 구주 성탄절은
저를 물신앙을 통해 신·물신을 막론하고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백자가 흐름에 따라
더욱 더 큰 명절로 많은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
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이같이 큰 명절
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구주 성탄절은 전상 전하에 가장 높으신
분이 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가장
높으신 선생님이시면서 그의 높으신 교훈을 감
히 비교할 자가 인류역사에 없으며 또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은 저리가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영원토록 움직이실 만
능의 대왕이 세상에 나신 날입니다.

또 성탄절은 가장 고마우신 예수님이 이 세상
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
하사 구원하여 주시려고 가장 큰 수고를 하여
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천성의 영광을 버리시
고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시되 만 위양간에 나
시었으며 우리들을 죄에서 악마의 사슬에서 또
저욕의 형벌에서까지 구원하여 주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시어 실을 찢고 피를 흘리시어
죽어 주신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삼일만에 부활·승천

하시어 지금 하나님 우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
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며, 우리가 세상
을 떠날 때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구
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죽을정거장에 아중
나오시어 우리를 천국으로 성결하여 주신 고마
우신 분이 나신 날이 곧 이 구주 성탄절이므로
이 날은 영원한 명절입니다.

이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이 고
마우신 예수님이 나신 이 귀한 명절에 우리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증거를 찬양을 입
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고 영으로 힘껏 불러
부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기 위하여 우리
들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또 이 예
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시간
과 재산과 몸을 바쳐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만 따르기를 굳게 다짐하시고 거역하시면 성
결을 사관하시어 잃고 배우며 버려지기를 힘 쓰실
시다.

끝으로 인류의 대왕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으
로 보람을 입으시고 보람을 받으시고 인도하심
을 받으시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생활을 가지
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 교 □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요셉

성경/마태복음 1:18-25

정 상 우 목 사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흔히 성탄절이 되면 마리아, 동방박사, 목자들의 이야기는 많이들 하어도 요셉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로써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하신 분이며 또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하신 분입니다(미가 5:2).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에 파혼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마 1:19) 아마 마리아는 죽었을 것이고(신 22:23, 24)

또한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꿈에 지시를 민첩하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하였을 것입니다(마 2:16-18).

이제 요셉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한 일을 생각하며 금년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가 함께 교훈과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I. 요셉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뜻을 바로 깨달

았습니다(마 1:20-23)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번민하였으며 파혼하려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의 계시로 예수님 탄생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 「임마누엘」하신 것을(마 1:21-23)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탄절 축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성탄을 축하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교회에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며 그날을 모른다 하여 성탄절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참된 의의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마 1:20, 고전 12:3).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날인가?

첫째, 「임마누엘의 날」입니다(마 1:23).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려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입니다(요 1:14). 고로 이 날은 인류역사상 가장 귀한 날로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인이 달에 착륙한 일도 비교가 안 되는 전우주적인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날」입니다(마 1:21). 예수라는 이름은 천사가 계시하신 말씀으로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입니다(마 9:13, 마 1:21).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있을 수 없었기에(행 4:11) 이 날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눅 2:10, 14에 천사는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을 예고한 날」입니다(요 3:18). 예수님의 탄생은 택함 받아 믿는 자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에고하는 무서운 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불신자들이 몇 모르고 좋아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와 마귀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임을 알아야 됩니다.

Ⅱ.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영접하였습니다(마 1: 24)

요셉은 천사의 계시로 성탄의 의의를 깨닫고 곧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마리아를 영접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소를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쁨으로 마리아를 아니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을 맞는 우리도 꼭같이 갖추어야 할 것은 날에 대한 축하보다도 내 마음속에 말기유에 탄생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의 어떤 시인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탄생함이 없다면 베들레헴

의 탄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읊었습니다. 사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역사적인 지난 날의 성탄절을 축하할 의의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는 「가 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 보라」는 말씀은 바로 내 마음 속에 영접하는 신령한 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인을 위한 기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엡 3: 17)” 하였던 것입니다.

Ⅲ.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읍니다(마 1: 25)

요셉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영접한 후에 동침하지 않으면서 성결한 생활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심령의 성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성결한 심령으로 축하하여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

시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며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히9: 28).

그러므로 금년도 성탄절을 축하하는 우리들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성결한 생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197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크리스마스 축하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요셉처럼 말기유에 탄생하신 지난 날의 성탄의 의의를 바로 이해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형상을 이룩하며(갈 4: 19),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성결한 성도의 생활에 힘쓰면서 이 복된 성탄의 복음을 널리 전합시다.

주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교회 부목사>

특 집

1972년을 돌아본다

신 입 부

우리교회 사업목표중 하나인 천국 일꾼 양성에 있어서 지도교역자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인적 위발침과 눈물과 땀으로 정성어린 성도들의 헌금(재정적 뒷받침)이 천국일꾼양성에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증점을 두었던 신입부의 금년 사업은 어린이 심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입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진한 면이 있었다면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특별한 교육훈련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을 굳이 든다면 효과적인 제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신입부 전용의 사무실이 없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장 이창준 장로>

유 치 부

유치부는 교회의 교육목표인 천국일꾼을 양성함에 준하여 유치부 어린이도 천국일꾼의 첫걸음으로 키워 보려 하였다. 증점을 두었던 사업은 겨울, 여름성경학교를 통한 주일 보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성경암송대회, 십계명암송대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였고 특히 하반기에 있는 반별 찬송대회에는 어린이와 교사와의 친목을 두터이 하고 유치부 교과과정의 하나인 주기도문노래를 지정곡으로 하여 언제나 부르도록 하였다. 절기 행사로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행사를 하였고 추수감사절 때 여러 교우 앞에 보인 노래극 「지혜로운 솔로몬 임금」은 오래 기억될 것이며 성경암송과 반별 찬송부르기 대회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적자원이 좀 더 보충되었으면 좋겠고 행정 처리는 보다 합리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한다. 또 피아노가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비나 비품이 많다. 대체적으로 1972년은 학부형과 교사들의 협조로 사업계획에서 발로 뚫어낸 것이 아니었고 어린이에게는 신앙심을 부흥들에게는 보다 큰 관심을 크게 더하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백진주 전도사>

유 년 부

도자 양성부가 생기어 평신도 훈련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성전건축을 위한 대지와 일부 기금이 마련된 1972년 유년부가 가장 증점을 두었던 사업은 교사 자신의 자질향상과 심방이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은 곧 담임의 신앙생활의 반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규모가 큰 우리교회의 첫걸음이 되기 쉬운 일선 교사들의 창의력과 모든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상실을 없이하기 위하여 철저한 과장 중심의 운영을 꾀하였다.

그러나 대단히 불충분한 인적자원과 미비한 설비와 비품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의 교사들에게만 이라도 교회 전체의 교육 마스터-플랜이 있어 분명한 교육방향을 가지고 지도자 자신은 물론 전교사가 항상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훈련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부장 최석주 장로>

초 등 부

우리 교회의 사업목표인 선교, 성전 건축, 천국일꾼 양성이 표현된 사업으로 선교사업이 표현화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를 뒷받침 하는 천국일꾼 양성의 조직적인 운영방안의 제시가 없어 아쉬웠다. 초등부 총무처장으로 교회행정 체제 단일화를 위하여 기록행정 관리 운영 방안에 증점을 두었다. 그러나 목표하던 바대로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일이나 행정에 필요한 연구자료를 어느정도 비치하게 되어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부진하였던 면은 동반, 제적 처리에 대한 정리상태가 교사 이동으로 원만치 못하고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였던 점이다.

예산 집행면에서 볼 때에 동반생에게 신입부에서 상품을 주었는데 동반부에서도 또 환영하는 뜻의 상품을 주어 이중성을 가지게 되는 점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낭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교사의 빈번한 이동으로 행정에 있어 일정수준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점이였다. 또한 서기와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아 원만한 사무처리를 할 수 없었다. 큰 마찰이나 실수 없이 일년동안 원만하게 지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중직책으로 한가지 일에 전념할 수 없어 깊은 연구가 없는 것은 연구과제라 하겠다.

<총무처장 서동석 선생>

천국일꾼 양성과 대내외적인 복음전파를 위하여 지

중 등 부

(1) 교회의 사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성전건축 헌금의 실시와 하기 수양회 및 동기 수양회 특강 등이다.

(2)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하기 수양회이며 그 이유는 방학을 이용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성공적이었던 사업은 역시 하기수양회로서 특히 철야기도회 및 새벽기도회의 실시로 신앙의 수련으로서 성공적이다.

(4) 부진했던 것은 전도사업이었는데 원인은 전도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사업계획과 적은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다.

(5) 지도교역자로서의 운영방침은 학생들의 지속적인 신앙성장과 실질적인 친국 일꾼의 양성이다.

(6) 우리교회 주일학교 모든 부가 교육대상에게보다는 교사에게 대한 예산의 지출이 과다하다고 본다.

(7) 인적 자원으로는 약간명의 교사가 부족했다.

(8) 모든 행정처리는 대체로 합리적이었다.

(9) 설비면으로는 현저한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실시에 많은 부작용과 애로점이 있다.

<지도교역자 지우묵 전도사>

고 등 부

이제 막 청년기로 접어들기 직전의 꽃봉오리들을 알찬 친국일꾼으로 키우기 위하여 급년 한해도 이모저모로 애썼다. 고등부에서 이룰 이루기 위해서 「은혜 받고 전도하자」라는 목표로 모든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은 「하기수양회」를 그 애로 꼽고 싶다. 예년에는 80~90명이 참석하였던 수양회에 급년은 170여명이라는 학생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는데 원인은 준비기도회와 수치의 현지답사와 학생들의 가정방문 서신 연락 등으로 주지시키며 은혜의 분위기를 위하여 애쓴 보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산의 낭비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며 행정처리도 좋았다고 본다. 그러나 설비, 비품등이 불충분(마이크가 좋지 않아 펙 불편함)하여 애로를 느끼었으며 특히 기혼자며 대졸자라야 고등부 교사로 새운다는 원칙은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는 면에는 좋으나 교사 확보의 난점이 따르게 되어 어느 부서보다도 인적자원의 부족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안 과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비록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해도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힘차게 일할 것을 다짐한다.

<부장 신계택 장로>

대 학 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것이 잘되고 바로 설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 대학부는 이와같은 말씀을 준행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말씀연구와 기도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대학부에 주님이 크게 축복하시어 그 어느 해 보다도 급년의 대학부 전도사업은 모든 사업보다 두드러졌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교회생활에 익숙치 못한 신입생들을 낯오 시키지 않고 정착시키는 문제는 껍이나 부진하였고 문서활동 또한 바람직한 것은 못되었다. 교회의 중추적 일꾼 양성을 목표로하여 대학부는 육성되고 있으나 그래도 때로는 인적자원의 불충분함을 느낀다.

예산집행은 무난히 되었으나 계획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너무나 수동적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이 규제되지 않도록 연구되어지면 더 좋겠다. 애로점은 설비와 비품이 너무나 빈약한 점이며 특히 장소문제는 심각하다고 본다. 아울러 남자 전용 기도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학생면려회 회장 박형렬>

청 년 부

교회 사업목표인 선교, 성전건축, 친국일꾼 양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급년의 청년부 사업으로 전도사업을 꼽고 싶다. 병원전도(5회), 노방전도(17회)를 통하여 연 690여명이 전도에 참가하였고 70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또한 수양회나 특별기도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전도에 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신앙이 다져졌다. 특별히 청년부가 독특하게 취하고 있는 그룹(group) 성경토의와 기도회 방식은 청년부의 질적, 양적인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진한 점도 없지 않아 전도를 통해 얻은 많은 결신자를 조직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의 결여로 교회까지 이끌어 들이지 못하였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또 내적인 문제도 개인적인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청년회원들에 대한 상담활동이 전혀 부진하여 앞으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도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상의 낭비는 없었다고 말할 수 없으나 무난하게 집행되었다. 그러나 계획에 없는 활동이 72년도에 많이 집행되었음을 앞으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요청되는 점이 있다면 청년부만이 음악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 음악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을 배정하여 주는 배려가 절실하다. 또한 매주 70~80명이 집회에 참가하는데 현재의 집회실로는 포화상태여서 앞으로 참가 인원이 증가한다면 더 이상 수용할 능력이 없음은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 특집 / 1972년을 돌아본다 ●

1973년의 청년면련회는 지금까지의 활동에 반성과 아울러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아직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모토가 되고자 한다.

<청년면련회 회장 김정일 집사>

남전도회

우리교회의 남전도회는 국내외의 복음사업을 목적으로 1957년 1월 2일에 창설된 이래 4개처에 지교회를 세웠고 그 지교회들이 오늘날에는 모두 훌륭하게 자립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 자립시킨 성동구 마천동의 동현교회(예종탁 목사 시무)는 불과 3년만에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신축하였으며 사택까지 구입시킬 수 있었음은 놀랄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모든 회원이 일치 단합하여 전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보아 감사할 뿐이다.

이를 성공하게 한 주 원인중의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싶다. 회원을 많이 포섭하여(그러나 아직도 전체 교인수에 비하여 회원수가 30~40%정도에 불과하다.) 동조를 얻었고 회원간에 친교를 도모하여 힘을 한데 모으았으며 회원을 조별로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지교회에 파송하여 회원 전원이 지교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였고 전도의 열을 높이기 위하여 수차의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전제가 되었던 임원중심의 활동체제를 지양하고 전 회원을 분할하여 각 부에 소속시켜 부원활동을 강화시킴으로 모든 사업에 누구나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였다.

연령의 격차가 극심하여(30세로부터 80세까지) 다소의 애로는 있었으나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73년도에는 가장 젊은 분들을 중시하여 남전도회의 중임을 맡김으로 새해에는 보다 나은 활동과 업적이 나타나리라 기대하며 금년도를 결산한다.

<회장 최석주 장로>

여전도회

1972년의 총현교회 여전도회 사업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는 데 있었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업은 철도병원, 중부시립병원등에 전도사를 파송하여 병상의 피로한 영혼들에 복음의 빛으로 기쁨을 주었다. 또한 총회신학교 신학생 1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여전도회의 지교회인 산정현교회를 자립시켰다. 여전도회 연합회와 본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교회내 I 부 교역자들을 도왔다.

각부의 활동분야를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종합하여 보면 ① 교회내 각 행사 때(부흥회, 성찬식, 각부 수양회, 경로회, 하기, 통기성경학교)에

몸과 물질로 봉사하며 특히 지육부는 매 월례회 때마다 2,3명씩 나와서 성경암송을 하며 음악부에서는 각 구역별 성가경연을 하여 연말 결승에 많은 시상상을 한다. ② 교외적 활동은 연합회 실행위원 6명 피선총회 시 성경암송입상, 합창부에서 1등한바 있다. 1년간 계획하였던 사업으로서 부진하였던 일은 별로 없고 예산의 부족으로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은 일들이 많이 묶이우는 일들을 남기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주님이 남겨주신 일에 협력하여 주었으면 하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기 구명신 집사>

지도자 양성부

친국일꾼 양성에 교회의 뗏목함에 감사를 포함한다. 그러나 교사와 평신도의 신앙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초부터 교사 부흥회와 또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72년도에 지도자 양성부를 신설하고 수차 광고(데 에베소서, 주교각부 안내서, 계시판 등) 하였지만 무관심에 대하여 실망을 하였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우선 숨은 인재를 발굴하여 교사로 양성하고 현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라는 문제에 두었다. 예산상의 낭비는 없었다고 보며 지도교역자의 운영방침은 좋았고 행정처리도 무난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설비나 비품등의 불충분에 양성부 전용장소가 없었음은 매우 어려운 점들이었다. 설립한지 1년 동안에 2기까지 배출(53명)하면서 느낀 점은 평신도 중에서 교사를 발굴하여야겠다는 것과 현 교사들이 자진하여 철저한 신앙훈련과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부장 신계택 장로>

교육위원회

격동하는 시대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실력있는 친국일꾼들을 키워 보려는 우리의 정성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는 표제어에 가진 연초의 교사 심령부흥회는 2,000명 가까운 영혼을 책임진 교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명 의식을 불러 일으킨 것이 틀림없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교사, 이론이나 기술에 능한 교사보다 올바른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흐뭇한 일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체계적인 지도자의 육성에 중점을 두었던 우리 목표가 만족하리만큼 모두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제 1,2기생의 배출과 제3기생의 계속적인 지도자 교육은 보다 희망적인 앞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농촌 교사초청훈련과 전도요원훈련에 의한 전도 성과는 매

우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속하여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가담하는 수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일은 실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열매를 거둔 것은 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은 물론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진 그리고 실무자들의 의욕적인 헌신의 결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즉 지도자의 수적 부족과 함께 질적향상 역시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사 여러분과 온 교회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아낌없는 사랑의 협조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예산의 낭비는 없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교사 여러분의 노고를 효못하게 위로 못한 것이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의 하나입니다. 더우기 교육시설과 장소가 협소한 고로 원만한 행사와 충분한 회합이나 친교활동을 위한 모임들이 자주 지장을 받게 된 것도 마음 아픈 일이었읍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교회 신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모든 사업의 사무적인 계통과 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사전계획, 사전준비, 사전선전이 원만히 되지 못하여 때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도 없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새해에는 치밀한 계획과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학교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참된 신앙인격의 성장은 좋은 교회와 좋은 교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최고의 사람 되기에 앞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고 집집마다 교육하는 가정을 만들고 교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새역사 창조의 역군들이 될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창 목사>

건축위원회

(1) 성전건축부지 상황

본 교회 설립 15주년 때에 성전을 새로이 건립하기로 하고 위치는 한강수 이남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중 1970년 12월 성동구 논현동에 야산 9,000평을 구입하고 71년 9월 시(市) 당국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 계획이 공표되어 논현동과 삼성동에 걸쳐 6,067평 4흡의 단일경로로 하는 환지가 확정되었다.

(2) 영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70년 말에 시(市) 당국이 공표한 바에 의하면 영동 2지구는 70년 후반에 착공하여 72년까지는 건설비를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현대도시의 기본여건을 갖추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시의 재정사정과 제반 형편으로 구획정리 공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간선도로와 교량의 건설, 그리고 일부 공구에 있어서 시민아파트, 시민주택 등의 건축을 보고 있으나 본 성전부지가 위치한 제 3공구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3) 1972년도 건축현금 상황

한편 지난 71년말 건축기금 출연을 발표하고 금년

말까지 계속 현금이 담지하고 있는바 처음 목표 1,200만원에는 미달이나 성도의 정성으로 1,000만원 가까이 적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기금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신년도 전망

앞으로의 시당국의 건설계획을 알아볼 때 제 3공구의 30미터 도로의 건설은 73년 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74년까지는 3공구의 높은 지대인 본 성전부지(585, 586 구획)의 정지작업이 완료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명년은 본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바 성전건축의 착공을 앞두고 금년에 이어서 건축기금을 대폭적으로 적립할 일과 공사설계 등 제반 준비가 촉진될 것이 기대된다.

우리의 열원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수도 서울의 동남쪽 논현, 삼성의 산마루에 건립되어 우리의 후대에 순수한 믿음의 유산과 더불어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합심 기도하고 지성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위원장 위영환 장로>

동산관리위원회

(1) 총현동산의 연혁

지난 1964년 한 성도의 가정에서 약 70,000평의 산을 헌납한 일이 있는데 교회는 이 가락한 뜻을 받아들여 교회묘지를 설정할 것을 결의하고 이 산은 처분하여 기금의 일부로 세우고 새로 적지를 물색한 끝에 1968년 현위치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43,655평의 임야를 구입하게 되었다.

동년 12월, 경기도 당국으로부터 사선(개인) 묘지허가를 받고 교회묘지로 가꾸기 시작하여 분묘는 반원형틀형(한국식 분묘의 좋은 점을 살리면서 대리석 또는 세면으로 형틀을 만들어 현대미가 가미된 방식)을 채택하여 아름답게 묘지를 꾸미고 있으며 현재 88기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다.

(2) 제단 발족

그러나 교회묘지의 백년대제를 살펴보고 또 나라시책으로 묘지문제가 극토개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인묘지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당회는 금년 3월 재단법인으로 발족시킬 것을 결의하여 4월에는 관공을 갖춘 공원묘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허가신청을 보사부에 제출, 묵하 수속이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좋은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앞으로의 계획

법인설립허가 후에는 곧 사설묘지 허가 신청을 경기도 당국에 제출하여 공원묘지의 정식허가를 받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동산 전역을 공원화시켜 산의 지세를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식 묘원을 조성하여 묘소로서의 기능을 다 할 뿐더러 각종 시설을 갖추어 온 성도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보급자리로 가꿀 계획이다.

끝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가정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귀한 사업에 온 성도의 기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위원장 위영환 장로>

□ 바람직한 교회상 □

성령의 역사, 성장, 영광

위 영 환 장로

(1)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내가 충청교회 교인이 되기 전의 일이다. 부산서 수복이 늦어진 나는 1년에 한두 차례 상경할 기회가 있었다. 딸들이 다니는 동일교회(본교회)에 으레 나와서 주일을 같이 지켰는데 그 때는 성전을 확공하기 전이라 천막에서 돛자리를 깔고 예배드릴 때이다. 김창일 목사의 천막 설교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수복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재건을 위하여 성령의 능령을 간구하고 있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과 우리나라 초기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6·25 때의 열렬한 신앙생활 등과 같이 고찰하여 보니 환난과 역경과 또 큰 과제를 앞에 놓고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때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알찬 교회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2) 진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20년이면 세대가 바뀌어지는데 본교회는 매년으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한다. 것으로 자라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단단한 식물로서 자립신앙으로 발전할 때이다.

첫째로 설립 10주년 때부터 제창하던 천국일꾼을 키우는 운동이 전교회 남녀노유가 참가함으로 엄청난 훈련으로 신앙인격이 키워져야 하겠고 둘째로 전도사업이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고 특히 군문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복음화 운동이 전개되며 또 해외에 선교하는 노력이 배가되어 미개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되겠고 세째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웅장한 새 성전을 건립하고 또 제단을 구성하며 충청동산을 공원화하는 일과 기타 여러 사업을 전개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진작되고 우리의 자라나는 모습이 선양되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다.

(3) 영광스러운 교회

기독교는 공의의 세계와 거룩한 나라를 회개하고 있다. 흑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인생에게 빛을 비취주고, 속박되어 사는 인생에게 자유를 주고, 죄값으로

영벌을 면치 못할 인생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푸는 종교이다. 현세에 있어서 선한 양식으로 바른 도덕을을 간직하고 내세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부환과 제림을 확신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

평안할 때, 다가오는 환난을 준비하고 진리와 성결과 정결로써 살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 날 들리움을 입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건축위원회 위원장>

데살로니가 교회 본받아

임 현 덕 장로

바람직한 교회라 하면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머리에 떠오른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감사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면, 세속에 물들여 참으로 믿는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사랑마저 식어져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사람에게서 거대고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가 낙심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음을 볼 때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서 실상가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목숨을 버릴 생각보다는 교권주의에 눈이 어두워 교회들 물 셋으로 분열시키고 있으니 이 또한 서글픈 일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체면만 돌아보며 인정에만 치우치는 경향이니 바람직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죄악이 조수같이 밀어닥칠 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주초 위에 교인 각자가 말보다 실천으로 무언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하여 예배와 성찬과 권징을 올바르게 하여 교회의 권위를 되찾아 이 복음 그 대로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작오와 해씀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기 위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내적으로 충실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써 암흑 세대의 등대로서 구실을 다할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중동부 부장>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박 관 영 집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

바람직한 교회상을 생각해 볼 때에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 교회는 꼭 부흥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1) 성경공부와 기도생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담의 지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어 우리를 위해 비시며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임인데,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닮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쉬지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루를 전하면 배고파 해도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지 않고도 무감각하여진 대다수 현대 교인들의 병폐는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도로써 끊임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신앙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말씀 연구로 자기 신앙을 반석 위에 확립하여야 분별 없이 사이비종교나 신비주의 신앙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며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정통 보수신앙을 견지하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로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않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계속될 때 하늘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2) 봉사와 충성

신앙인격의 변화로 나 중심의 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로 변하고 이 세상의 소망을 분토처럼 다 내어 버리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인 바 자기 받

은 바 은혜대로 봉사할 것인데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고전 4:2)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눅 16:10)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셨지만 나 주를 위해 무엇하였는가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를 때 어찌 말은 책임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 본위의 사고방식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생기며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믿음과 봉사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 4:10)」.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교훈하시던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자진하여 맡아하려는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의 면류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3) 전도와 교회부흥

성경공부와 기도생활로 각 개인 신앙생활이 변화되어 모든 교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아끼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봉사하며 사명감에 맡은 책임에 충성한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교회는 저절로 부흥 발전할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 충실과 아울러 대외적인 전도에 힘써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값없이 받은 영생권을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과 온 겨레에 전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전도뿐임을 명심하여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전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를 향하여 세번씩이나 다짐하여 물으시고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거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합시다.

《성도의 생활지도》

혼례 · 수연례 · 상례는 어떻게

백 성 룡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일원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의 관례적인 규례나 모든 법도에 준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죄가 되는 구습은 버려야 하지만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엄숙히 치루어야 할 여러가지 예식이 있는 것이다.

어떤 예식이든 그 예식의 목적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자사회에서는 동떨어진 이방인의 행사와 같이 되는데 이것은 경계해야 하며 자자가 조심하여야 할 일이다. 같은 예식이라도 때에 따라서 그 형식이 어느정도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차라리 그 예식의 개선의 의의를 낳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 일률적으로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예식마다 각기 목적은 다르나 신자가 치를 모든 예식은 공통된 세 가지 근본적 의의만은 결여되지 말아야 된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적 다짐이고 둘째는 그 예식을 거행하는 장본인들의 신령상 유익이다. 세째는 그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며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 다음 몇가지 예식을 생각하여 보자.

1. 혼례식

결혼식은 기독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천주교는 성례의 일종으로 여기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으며 적어도 그 다음으로는 꼽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은 약혼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여 사람들의 이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결혼 전후하여 「합」을 지고 오는 일이나 「폐백」같은 일은 신자로서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 많으므로 진폐되어야 한다.

결혼 주례는 결혼 당사자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목사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다. 장소는 가급적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야 한다. 이터므로 예배당을 식당으로 하는 것이 좋다. 결혼 당사자들은 사전에 주례목사에게 호적등본과 보호자의 혼인 허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혼 전날쯤하여 주례자를 찾아 당일에 될 절차에 대하여 의논하고 여러가지 지시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에 피차 실수가 없게 된다.

2. 수연례식

보통 생일 때와는 달리 60회 생일 때는 회갑이라고

하여 크게 잔치(宴) 하게 되는 것이 예사다. 이 회갑은 세속적인 풍습에서 온 것이지 성서에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가정에서 이 잔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노후에 접어드는 어른들을 존경할 것과 자식들의 효심을 키워주는데는 그 어느때보다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생일을 당한 분을 중심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같은 항렬의 순위의 분이나 항렬이 높은 어른을 배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예배와 절하는 순서가 끝나기까지는 배식을 하거나 음식을 먼저 드는 분이 없도록 안내하는 분은 그 식당 분위기를 잘 살펴야 한다.

주례자의 지시에 따라 식기도가 있는 후에 다같이 식사를 거의 마칠무렵 주인공은 오신 손님들을 찾아 감사의 뜻으로 인사하면 격에 알맞는 일이 된다. 때로는 풍류객을 청하여 여흥을 하는 일들이 있으나, 이것은 삼가야 하며 성도들 간에 합당한 놀이를 갖는 정도가 좋을 것이다.

3. 상례

사람이 운명할 무렵 가족들은 둘러앉아 찬송을 부리며 신앙을 격려해 줄 것이다. 당황하여 운명하기도 전에 곡성을 내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절제하여야 한다. 언동에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예식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여야 한다. 우리교회에서는 일체의 상복을 폐지하고 완장과 리본으로 표시만 하게 되어 있다. 장례절차에 대하여는 교회측과 충분히 의논되어야 하며 처음부터 불신자는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입관식, 발인식, 하관식 등으로 장례식은 마치게 되는데 특히 발인식의 절차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 순서가 있을 수 있다. 약력소개나 호상축 인사는 누구나 할 수 있겠으나 조사와 조가는 주례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사와 조가가 기독교예식에 합당한 내용인지를 주례자가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분향과 배례는 금지되어야 하며 손님에게 술대접하는 일들은 삼가야 한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하루 한번 이상 혹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하관식을 마치고 상가에 돌아와서 위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행사는 끝난다.

□ 젊은이의 발언 □

아 느 나

이 효 은 집사

인간은 언제나 역사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J. 토인비는 “역사가 역사를 만들고 모순이 모순을 벗어대며 인생은 너무나 약하다”고 하였다. 실로 인간의 인생은 약하다. 역사의 한 페이지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얹히고 또 그것이 씨알이 되고 종자가 되어 우거진 역사의 숲을 이루었다. 거기에는 슬픈 카나리아와 같은 정원이 있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한 시내가 있다. 또 가인처럼 피를 묻힌 바위가 있고 빌라도처럼 짐을 남긴 고목의 연륜도 있다. 이것은 모두 저마다의 인간들이 속아 살아온 지나간 역사이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아느냐?” 참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을 바로 수술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역사의 의미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의 주인이 결코 인간은 아니다. 그래서 칸·뢰비트는 그의 역사의 의미에서 “역사의 줄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다”라고 하였다. 독일의 랑케도 “모든 시대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다만 그 책임은 그 시대의 인간에게 있을 뿐이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아느냐?” 아무리 생각하여도 오늘날의 역사에는 전제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막스를 전제한 역사와 키엘케골을 전제한 역사는 다른 것이다. 또 소크라테스와 사도 바울을 전제한 역사도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전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서던 날 하늘은 빛을 잃었고 대지도 피빛으로 물들었고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던 소리가 모든 죄인의 심장을 흐느끼게 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시대를 아느냐?” 참으로 이 시대는 비참한 시대인 것이다. 결정적, 종말적, 위기에 직면한 시대인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기회가 최후적으로 주어질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뜨거운 눈물을 뿌려야 하겠다. 피물은 손건, 뜨거운 눈물, 담대한 외침, 이런 것들이 이웃을 감동시키는 내용이 되게 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옛날의 잘릴리 어부와 다를 것이 없고



주여! 이 생명 받으소서

김 영 휘

저주받은 듯한 어둠 속에

딩구는 빈사의 시신들

순간

마음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구토와 두려움

그렇지만

그건

다시 분노와 공황과

용솟음치는 애정의 물결로 출렁인다.

아! 생명의 면류관

주의 십자가를 생각케 함이여

어둠을 향한

간절한 생명의 기도

그리고 안타까운 회구.....

연이어, 돌아보며

호르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

주여!

이 생명 받으소서.

<청년부 회원>

또 모자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갯세마네의 출고 있는 낙오병이 아니며 얼마든지 기드온의 300명에 전입될 수가 있고 이 시대를 향한 선한 나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너희는 아느냐? 이 시대를...”

<초등부 성기대 지휘자>

□ 여성 수필 □

약조물을 받은 교회

구 명 신 집사

무슨 설계자도 건축가도 아닌 내가 바람직한 교회상을 감히 말할수도 없겠으나 평소 나의 마음 속에 우리 교회만은 정말 그렇게 안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간직하고 있던 것중 한가지만 말하여 보겠다.

창세기 38장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발」이 약조물을 받아 죽음으로 면한 역사가 나온다. 그 약조물은 곧 도장, 끈, 지팡이었다.

도장은 성경의 인맞은 자를 표시한 것이니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인맞은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또 끈은 곧 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진리의 머를 띠고 단

정하게 걸어가기를 원한다. 또한 지팡이는 곧 도세에게 들려 주셨던 능력의 지팡이로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 구결하던 얇은 방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기도 뛰기도 하며 달음박질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새해가 되면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유년과 소년의 철없는 시절도 지나간 것 같다. 약조물을 받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증거를 삼아 죽음을 면하고 영생길에 들어서는 교회로 우리 충현교회가 된다면 이 어찌 바람직한 교회상이 아니겠는가.

<성가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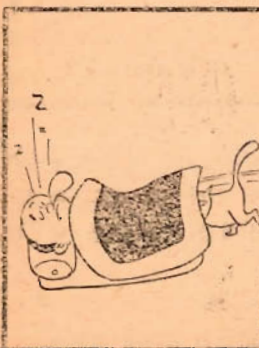
(명) (상)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빌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3)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그 계획을 펼쳐본다

□ 편 집 실

1973년은 우리 중현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그 준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총무로 5가 36번지는 타락한 시대의 상징인양 조일파, 장춘각 등이 있어 흥청대던 자리로서 전화로 초도화된 이곳에 1953년 천막교회를 세웠고 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충성된 중들의 땀과 눈물의 희생적 봉사로 오늘에 이른 것이다.

1963년 10주년을 맞아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에 전력하여 많은 천국 일꾼을 길러내었다.

1968년 15주년에는 「해의복음선교」와 「성전 건축」에 뜻을 두고 힘써 오던 바 1971년 서만수 목사 대외를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성전 건축」도 순조로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1973년 20주년을 맞이하여서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가?

참신하고도 알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유명한 무더 성경학교와 같은 「성경학교」 설립과 중현이 걸어 온 20년 발자취가 기록된 「연혁 편찬」이 계획되고 있으며 회식(기념품) 및 식장준비 등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72년 10월 29일 정기 당회에서 창립 20주년이 되는 1973년에 기념행사를 벌이기로 하고 최석주, 송순일(교육1부), 신계

택, 김창배(교육2부), 김기정(재정위원장), 윤종순(서무부장), 조현명(당회 서기) 등 7명의 장로로 구성된 20주년 기념행사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어 11월 28일 정기당회시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그 준비작업을 끝내고 정식으로 「20주년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 준비위원회의 조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조 직

(1) 준비위원

고 문 : 백성룡목사, 강지순장로, 오종락장로, 김연순전도사, 이명달전도사

위원장 : 조현명장로(당회서기)

부위원장 : 위영환장로

서 기 : 이태규장로

위 원 : 김기정장로, 한명옥장로, 윤종성장로, 송순일장로, 신계택장로

상임위원 : 각 분과위원장및 차장

(2) 분과위원

① 연혁편찬분과위원회

위원장 : 윤종순장로

차 장 : 김창배장로

위 원 : 김칠준장로, 황기성장로, 김기정장로, 조현명장로, 최석주장로, 이태규장로, 정기성목사, 홍종만전도사, 조선근집사, 안익태집사, 김차생집사

② 식장준비분과위원회

위원장 : 우성원장로

차 장 : 임현덕장로

위 원 : 허 준장로, 오승률장로, 김한홍장로

③ 회식(기념품)준비분과위원회
위원장 : 김광철장로

차 장 : 최석주장로

위 원 : 이창업집사, 박봉주권사, 전순자집사

④ 성경학교설립준비분과위원회
위원장 : 신계택장로 (지도자양성부장)

차 장 : 홍종만전도사

위 원 : 위영환장로, 김광철장로, 김창배장로, 이동규장로, 김기정장로, 임현복권사, 정봉주집사

◇ 사 업

(1) 중현20년사 편찬

(2) 축하예배

① 기념예배 : 1973년 9월2일

② 음악예배 : 각 성가부별 주회

③ 성경암송대회 : 주교 각 부별 주회

(3) 성경학교설립 : 1973년 9월

◇ 예 산

총예산 : 250만원

(1) 기념행사비 : 150만원

(2) 성경학교설립및 운영비 : 100만원

이상의 각 분과위원별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온 교우 앞에 세 부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다.

온 교우들은 성년이된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시 되새기어 알찬 기념행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어야 하겠다.

* 교회 뉴스 *

□ 성탄축하예배 성황

1972년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아 본교회에서는 작부 주위로 나흘동안 성탄축하음악예배를 드렸다. 대학부에서는 지난 20일 저녁에, 중·고등부에서는 23일 저녁에, 성가부에서는 24일 저녁에 그리고 유·초등부에서는 크리스마스 당일인 저녁 7시부터 갖가지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룬 중에 축하예배를 드렸다.

□ 장로장립식 안수식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 즈음 본교회는 노회의 장로 시험에 합격하신 3분 장로님께 안수하는 식이 11월 9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었다. 장립식과 함께 거행된 안수식의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같다.

장로 : 이태규, 오승철, 황창룡
집사 : 김도점, 박창수, 이웅선, 이창업, 윤용규.

□ 전방 국군 장병 방송 전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사업에 따라 72년도 본 교회에서는 전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던 중 전방의 군인들을 위한 방송전도가 10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 일선의 ○○부대를 위시한 여러 일선 지역에 방송되는 이 전도는 군인들의 주일 아침, 저녁예배와 수요일 저녁집회에 방송되며 한주일에 2번씩 재방송되어 예배를 돕고 있으며 각 성가부에서 녹음된 성가곡은 새벽에 보조를 서시는 군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때 발표하신 군인들의 감사하는 편지도 이미 들은바 있듯이 많은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으며 많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인들의 많은 기도와 헌금, 특히 무명으로 드린 두대의 녹음기를 바치신분께 감사드리면 계속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이 방송의 모든 편집에는 신계택 장로님께서 수고하고 계시고 있다.

□ 당회장 부흥회 인도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두

곳의 부흥회에 다녀오셨다고 한다.

10월 30일에서 11월 30일까지는 중앙성결교회에서 11월 27일에서, 30일까지는 칠레교회 교역자 수양회의 설교를 담당하여 많은 교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 돌아오셨다.

□ 군 합동세례식에 참석

나라의 국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약속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세례식이 11월 20일 김창인 목사님의 주관으로 ○○부대에서 있었는데 400명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 동현교회가 자립을

72년도 11월 10일 남전도회는 전도회의 지교회였던 성동구 마천동 동현교회(예종탁목사 시무)를 10만 원의 자립 기금과 함께 자립시킴으로 3년간 키워 온 전도사업의 하나가 끝났다.

□ 72년도 남전도회 총회

12월 10일 73년도의 남전도회에서 수고할 일꾼이 선출되었다.

회 장 : 신계택장로
부회장 : 강순용집사
서 기 : 이기철집사
부서기 : 장병기집사
회 계 : 정성태집사
부회계 : 이병학집사

□ 72년도 여전도회 총회

73년도에 여전도회를 위하여 수고하실 새 일꾼들이 선출되었다.

회 장 : 이영주권사
부회장 : 박봉주권사, 이춘식권사
서 기 : 구명선집사
부서기 : 박기현집사
회 계 : 지영실집사
부회계 : 유분홍집사

□ 목정구역이 영예의 1등

여전도회 전도부와 지육부가 주최한 성가경연대회와 성경암송대회가 12월 13일 열렸는데 이것은 일년동안 계속우승한 팀으로 매달 여전도회가 모일 때에 도전하는 팀에 대해 계속해서 이겨온 팀들이 총연말대회를 가진 것으로 특히 암송대회의 1등은 정하여진 복음서에서 장과절을 지적한데 따라 암송하는 것으로 굉장한 실력을 소지하여야

대항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성가경연대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등 : 목정구역
- 2등 : 동대문구역
- 3등 : 회현구역

□ 사랑의 손길, 고아원과 교도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전도회 선교부에서는 새 곡식으로 떡을 가지고 인간과의 대화가 끊어진 시대문 교도소를 찾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데 이어 기쁜 크리스마스 새해를 맞아 부모의 사랑이 닿지 않는 시은 고아원을 12월 27일 방문을 하였는데 5만원의 구제현금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고 왔다.

□ 주일학교 교사총회

복은 해를 결산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교육 1부 신·유·유·초등부와 교육 2부 중·고·대학부에서는 총회가 12월 26일 저녁 6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2월 17일 2부대에 배시간에 발표된 명단에 의해 교사이동, 반담당, 부서배치가 밝혀졌으며, 72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73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보다 알찬 교육을 위한 새로운 다짐이 있었다.

□ 주일학교 교사 단기 강습회

계축년의 첫 출발의 신호가 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2일에서 5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교회 교육위원회 지도자 양성부가 주최하는 본강습은 이를 추진하는 일환책으로 급변 단기 강습을 통하여 현 주일학교 교사와 대학생 회원에게 교사자격을 수여한다고 한다.

수강자 전원에게 저녁이 제공되며 본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이어서 김성환목사님을 모시고 교사부흥회로 모이는 이 강습회는 현직 주일학교 교사는 가급적 전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대학생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현직교사에 한해서는 사정상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강신청을하고 본 강습기간중 발행하는 과제지(숙제문제지)를 제출하여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과 수강신청, 수강자격 및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교회 뉴우스

수강자격: ① 본교회주일학교 교육을 2년이상 받은 자로서 지도교역자가 추천하는 수세한 대학부원. ② 본교회 헌적 주일학교 교사. ③ 타교회에서 주교교사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수강과목: 주일학교 실무에 관한 전과목.

수강기간: 1973년 1월 1일—5일 (매일저녁 6시—7시 30분)

수강신청: 소정의 신청용지를 작성하여 12월 30일까지 주교 2부 사무실에 제출.

□ 청년회 정기총회

72년도 청년면회회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청년부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칙 통과에 이어 새로운 회장단 선거가 있었는데 회장에는 김정일집사, 부회장에는 서동석, 장영자선생이 선출되었다. 지난 해에도 자기 임원으로 수고했던 이번 회장단에 큰 성원을 보내주기 바라며 새해에는 더 많은 기대를 걸어 본다.

□ 대학부 전도와 기도 열심

대학부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수도노회 주교연 주최 성경퀴즈대회에서 단체1등 개인 1,2,3등에 입상하는가 하더니, 전도와 기도에도 열심이라고 한다. 매주일 전도하는 일은 계속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는 또다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뜻있는 학생들이 모여 철야기도회를 가지며 내 이웃은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이라는 웅대한 세계를 향한 꿈(vision)을 키우고있다 한다.

□ 고등부 신앙옹변 대회 가져

내부로부터 끌어 오르는 신앙심의 조리있는 표현방식과 설득력을 기르기 위해 고등부에서는 지난 11월 26일 교사회 주최로 신앙옹변 대회를 가졌다. 교사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성령에 충만한 열정은 소유한 청년신앙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것, 이 날 영예의 입상자로 1등 강신의, 2등 정관용, 3등 백남인균이 뽑혔다.

□ 중·고·대학부 성경퀴즈에서 우승

수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 성경퀴즈대회가 지난 11월 25일과 12월 20일에 열려 또다시 중·고·

대학부에서는 성경실력을 발휘 각기 11월 25일에 중·고등부 단체 각 2등, 개인 중등부 2등 천인범균, 고등부 2등 최진균이 입상, 대학부에서는 11월 20일 대회에서 당당히 단체대항에서 1등, 개인 1등 박운식, 2등 오윤숙, 3등 유국현 등이 입상하여 성경 잘보는 대학생들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 중등부 촌극경연대회

불신자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한다. 마참가지로 삼의 한 단면을 신앙에 입각하여 잘라놓고 보면 웃음거리도 많다고 한다. 지난 11월 18일 중등부에서는 오후 5시 유년부실에서 촌극경연대회를 가졌는데 해학과 풍자가 갖든 단막극은 그것대로 웃음 속에서도 남겨준 것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 대화극시도 초등부 어린이회에서

초등부 어린이회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4시 어린이 헌신예배시에 특별순서로 「돌아온 아들」이라는 제목의 연극은 유년부실에서 보여 주었다. 어린이 정서와 신앙의 자연스런 조화로 보다 전인격적인 교육을 초기의 목적으로 한 이 연극은 주로 대화 형식을 위해 내용전달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들 스스로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상황을 실감한다는데도 의의가 크겠으나 관람하는 어린이들 역시 어린이적인 표현방식에 꼭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는 듯하였다. 이 대화극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하는 어린이들이나 뒤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바쁘시긴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내어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셨다.

□ 교육 I 부 반별 찬송 경연대회

성도의 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인 찬송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바르게 부르는 법을 익히고 한편 주일학교 교사와 어린이, 어린이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맺어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유치·유년·초등부에서는 각각 반별 찬송경연대

회를 열었다. 특히 유치부에서는 키가 작은 꼬마학생들과 키가 크신 선생님들이 대조를 이루이 이채를 띠었는데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마냥 기쁘신지 연신 싱글 빙글이다.

□ 유치·유년·초등 졸업생 모두 358명

12월 마지막 주일, 31일 오후3시 교회 본관 2층서는 집금, 시상식과 아울러 졸업식도 있을 예정이다. 모든 어린이들은 새해부터 한학년이 올라 새학년이 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졸업을 하게 된다. 올해 교육1부의 졸업생은 각각 유치부가 53명, 유년부가 140명, 초등부가 165명, 모두 358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유년·초등·중등·각부에서는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이들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한다.

□ 유치부 학부형초청 좌담회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유치부실에서 유치부 학부형 초청 좌담회가 교사·학부형 51명(교사 16명, 학부형 35명)이 참석, 백진주 전도사(유치부지도)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날 좌담회는 시종 일관 화기 애매한 가운데 진지하게 이루어졌는데, ① 어린이가 유치부에 나오면서 달라진 점 ② 유치부 교육에 바라고 싶은 점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필요하며 교회교육이 학교교육에 우선하여 어린이들 마음속에 신앙이 가장 순수하게 잘 자리잡을 수 있을 때는 역시 취학 전의 유치부 때가 아닌가 하는 점에 동감을 표시하였다.

□ 이종표 강도사 도미

본 총현지 편집위원(간사)으로 계셨고, 신임부 지도교역자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던 이종표 강도사님은 신학 공부차 미국으로 도미하였는데 사모님께서는 벌써 미국에 계셨으므로 사모님 곁에 가지게되어 기뻐하시며 도미하셨다고 한다.

(시)

기

도

에프게니 바라틴스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내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광 위의 그 모든
유혹을 잊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엄하신
낙원에 들어가는
마음의 힘을
아,
이 몸에도 주옵소서

에프게니 바라틴스키(1800~1844)

러시아의 시인

<사설>

새 출발의 자세

금년으로 열아홉돌째 우리 「충현」이 자라게 된다. 새 해의 새 일을 위해 새 일꾼들이 뿔뿔했다. 「저너스」와 같이 지나온 뒤를 반성하며 전진을 시작해야 하겠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묻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가 문제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다짐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요구이시기 때문이다. 호화로운 업적을 가진 바리새인보다 상한 마음 뿐인 세리를 기꺼이 보시고 기액을 바치는 부자보다 과부의 동정 두 닢을 더 크게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량(物量)이 아니라 마음의 참(眞)을 보시기 때문이다.

구약에 보면, 누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고 하셨다. 상한 마음들이 모인 곳에는 통회가 있을 뿐이다. 통회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다. 이런 곳에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교만, 불평 등이 틈탈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바탕이 탁아되지 않고 추진되어 가는 교회의 온갖 활동이나 사업들이 아무리 꾸며져 간다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같아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충현 20년의 새해를 맞으며 이러한 실속있는 계획과 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편집하고 나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해의 마지막 호를 엮고 나니 감개무량하다. 금년도에도 이토록 들보추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개숙여진다.

◇...이번 호의 특집을 「72년을 돌아본다」는 다음 해를 위해서 한번 점검하여 보았다는 데에 뜻이 있겠다. 또한 혼례·수연례 상례에 대한 글은 아직 이 방면에 계몽과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터에 반드시 읽어두어야 할 것이고, 설립 20주년에 대한 구상과 대략 훑어보는 것도 사전 준비상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충현」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거의 공감대를 하면서도 성의·힘조의 아쉬움이 취재·편집 때마다 제기된다. 좋은 생각일랑 혼자만 갖고있지 말고 우리에게 나눠 준다면 「충현」은 더 알차지고 모두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조 V

독자 여러분!

북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 편집위원 일동

「충현」지를 위해 일하는 이들

편집위원 .. 윤종순 (대표)

최석주 장로

이동규 장로

홍준만 전도사

조은선 집사

정오표 선생

황기표 선생

한성길 선생

한명기 선생

한성길 선생

한성길 선생

한성길 선생

한성길 선생